



食品工業의 課題와 対策

現況의 考察

GNP에 대하여 12.3% (1975)의 寄與度와 製造業生産額 중 13.6%의 비중을 점하는 食品工業은 70년대 이래 質量兩面에서 健全한 成長을 지속하였으나 一般제조업 平均에 비해 資産, 成長力, 收益性에서 매우 뒤져 있다.

가, 生産規模

食品工業의 生産規模는 71년 대비 75년에 食料品 3.9배, 飲料品 3.3배에 달하였다.

나, 内部構造變化

同期間 중 内部構造變化 推移를 생산액기준에서 보면 中間材 및 粗加工分野인 淀粉·제분이 22.7%에서 21.7%로, 빵·국수製品이 19.4%에서 15.8%로 각각 저하된 반면 高次加工 및 高級食品이 3.2%에서 6.4%, 통조림이 3.7%에서 7.4%, 食用油脂製品이 3.5%에서 4.3%로 提高되어 내부 구조가 고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 輸出入

食料品の 輸出(76년)은 3억 9천 3백만 달러로서 이중 水産物이 80%를 占하고 農産加工品은 양송이 통조림이 3천 5백 60만 달러로 大宗이며 輸出寄與度는 5.1%이었다. 한편 同年 食品의 輸入은 4억 9천 7백 40만 달러로서 이중 穀類가 90%를 占하고 있다.

라, 貿易收支

食品의 貿易收支는 74년 4억 2천 8백만 달러, 75년 2억 8천 9백만 달러, 76년 1억 4백만 달러의 逆調를 보여 同期間 중, 逆調幅은 크게 단축되고 있으며 이는 遠洋漁業을 비롯한 水産物 輸出에서 기여되었다.

李
載
暉
〈農漁村開發公社社長〉

마. 輸出入 物價指數

71~75년간 식품의 수출물가와 輸入物價는 각각 90%와 37%의 상승을 보여 輸出物價는 후자대비 약 2.5배에 달해 매우 고무적인 면도 있다.

바. 資産·資本의 構成

식품공업의 타인자본 구성비는 82.9%인 반면 製造業平均은 78.5%로 나타나 기업수지면에서 劣勢하며 또 流動資産 구성비는 식품공업 52.9%, 제조업 평균 53.6%로서 同工業의 施設投資規模가 후자에 비해 매우 저위임을 나타내고 있다.

사. 成長力 指標

總資本增加率에 있어서 (76년) 食品工業의 경우 19.5%인데 대하여 제조업 평균은 27%로서 전자는 후자에 비해 확대재생산의 여지가 적다.

아. 收益力 指標

기업의 궁극 목적인 收益性을 賣出額 經常이익률로 보면 食品製造業 2.9%, 飲料品 5.0% 製造業平均 3.9%로 나타나 同工業은 수익성에 있어서도 후자대비 매우 劣勢하다.

食品工業의 國際比較

한편 國內食品工業을 主要指標 중심으로 國際 비교하면 國際競爭力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가. 物價動向

70~75년 食料品價格 상승폭은 韓國 2.31배 日本 1.64배, 美國 1.65배, 西獨 1.28배로서

比較諸國에 비해 價格의 상승폭이 매우 커 경쟁력에서 어두운 展望을 보여 주고 있다.

나. 資産·資本의 構成

他人資本構成比에서 韓國은 81.7%인데 대해 日·美·西獨은 각각 76.6%, 51.1%로 나타나 企業의 收益性면에서 相對的 劣勢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 收益力 指標

위의 事實은 收益力 지표에서도 반영되어 있드시 韓國의 賣出額 經常利益率은 美·日·西獨에 비해 각각 0.36%, 0.91%, 0.49% 수준에 머물러 擴大再生産의 원동력인 收益性에서도 先進諸國에 비해 매우 뒤져 있다.

食品工業의 當面課題

食品工業은 本質的으로 自主性이 약한 産業이다. 자연 조건이 크게 작용하는 農水産第 1次産物과 連結되어 있어 操業과 제품가격은 항상 流動的이다.

따라서 他産業에 비해 매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는 紙面的 制약을 의식하여 當面問題點을 다음 두가지로 要約한다.

첫째, 原料문제

요즘 主穀의 自給率이 1백 8.6%에 이르렀다고 하나 食糧의 概念을 廣義로 해석하여 自給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특히 食生活의 향상은 食品工業의 主素材인 小麥·옥수수 등 많은 품목의 海外 依存을 불가피 하게 하고 76년에 이들 主要 5개 품목의 輸入額만도 5억 5천 8백만달러에 이르며 이의 추세가 가까운 장래에 증식되리라는 전망도

없다.

따라서 원료의 定安의 確保與否가 食品工業 未來의 關鍵을 쥐고 있다.

둘째, 企業體制

食品工業은 手工業的 製造過程, 食品選擇, 기호작용 등 식품의 特質로 인해 企業規模는 영세함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국내 食品工業은 종업원 20인 이하 규모기업이 전체의 77.4% (75년)로서 美國의 56.3%에 비해 規模經濟에서 매우 영세한 상태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低資本, 低生産性의 惡循環을 면치 못하게하여 國際競爭力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면을 보여 주고 있다.

國際競爭力 強化

食品工業은 대개 어느 나라의 경우이든 國家保護産業인 國民産業이다.

앞에서 同工業과 일반 제조업 및 동공업의 국제 比較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식품공업이 불리한 현여건하에서 이를 당장 개방체제하에 노출시킬은 同工業의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음을 前提한다. 특히 식량 사정이 불안하다 함은 餘他の 어느 商品이나 原料의 부족과는 다르다.

또한 73~74년의 경우와 같은 穀價의 국제적인 폭등이 있을 경우 우리의 經濟가 이를 감당키 어려움을 勘察할 때 식량정책은 단순히 國際生産費比較見地에서 정책을 좌우할 것이 못된다.

따라서 식품공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문제는 특수한 觀點에서 초점이 놓여져야 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開放體制를 앞두고 同工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화 방안으로 다음 몇가

지를 提言한다.

첫째, 제품의 고급화 및 固有제품의 개발

농수산물 수출 계획의 主對象 품목은 粗加工品 영역인 人蔘, 豚肉, 漢藥材와 水産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食品工業은 국제 경쟁력과 輸出寄與度 提高를 위해 이들 제품의 고급화에서 부터 問題解決을 구하는 동시에 固有製品의 부단한 開發促進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둘째, 企業體質의 強化

영세성이 특징인 食品工業은 영세성 그 自體가 장점 일수도 있다.

이는 前述한 바와 같이 手工業의 性格과 多様な 商品선택 기호에서 연유한다.

따라서 零細業體에 特殊기호 分野를 도입시켜 이들의 存立素地와 활력을 提供해 주어야 한다.

셋째, 研究投資의 強化

科學年鑑 (75년)에 따르면 GNP에 對比 研究投資比較에서 美 2.6%, 英 2.3%, 佛 1.7%, 西獨 2.1%, 日 1.7%에 대해 우리는 0.27%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더우기 重化學工業에 重點을 두고 있는 우리의 經濟施策에 따라 同比率에서 食品工業分野에의 투자가 극히 미미할 것으로 思料된다.

따라서 위의 企業體質 改善手段과 연구 투자 강화는 同工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하나의 道程이 된다.

네째, 原料供給基盤의 安定化

國內供給 가능한 原料의 안정적 공급수단으로서 貯藏手段의 확충등은 이미 數多한 研究

에서 지적인 바 있어 여기 重言을 요하지 않겠다.

특히 附言할 것은 食生活의 向上 추세에서 필수 가공 원료의 해외 의존이 불가피한 此際에 國際生産費比較에서 매우 劣勢한 大豆等 一部 品目を 신중히 선정하여 이를 他收益性 作物栽培에 과감히 전환시키고 수입 대체를 고려 함도 직접적으로는 國民産業으로서의 內實化를 기하는 길이며 終局的으로는 國際競争力 強化에 기여 하는 策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食品工業團地의 造成

國內食品工業은 발생 과정에서 自家放任의 으로 生成한 결과 原料의 供給地와 工場立地, 工場立地와 消費地와의 關係에서 不調和를 일으켜 이는 資源利用의 效率性, 企業의 生産性을 低下시키고 群小不良業體亂立素地提供 등 문제점이 많다.

따라서 業種別 特殊分野를 선택하여 原料의 集荷에서 加工流通에 이르기까지 有機的 일관성을 갖는 食品工業團地를 造成하고 크게는 食品産業體制를 合理化하고 나아가 國際競争力 強化를 도모하여야 한다.

“한국식품연구문헌총람(2)”

드디어 出刊!

한국식품과학회에서 “食品科學”을 통하여 이미 수차례 걸쳐 알려드린 本문헌총람이 드디어 발간되었다.

지난 1月 本學會의 한국식품연구문헌총람(2)편찬위원회 (위원장: 權泰完)가 구성되어 작업을 개시한지 9개월만에, 1969년부터 1976년에 걸쳐 발표된 식품관계연구문헌 1491편을 수집, 분류하고 해당전문분야의 科學者 14名에게 위촉하여 정리한 것을 出刊하게 된 것이다.

1971년에 출판된 제 1 권에 이어 6년만에 출판된 제 2 권은 오히려 낮은 감이 있으나 기술정보가 생명인 食品科學工業界에서는 귀중한 資料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本學會에서는 會員뿐만 아니라 식품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本冊字를 배포하고자 하는데 분양요청요령은 다음과 같다.

○분양處 : 한국식품과학회(중구 충무로 4가 125-1, 진양아파트 610호, Tel25-5468)

○분양대상 : 특별회비(회비 7,000원)불입자

○회비납부요령 : 대체구좌 512715를 이용하거나 소액환 송금

한국식품과학회장 金 昌 滉